

매매·전세 물건 많은데 떨어질 줄 모르는 '집값'

광주 주택 매매 건수 3개월 전 2192건서 3062건으로 39.68% 증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105.5·전세 가격 104.0 기록...가격 강세 여전

"6월 세금부담이 커지기 전에 집이 팔려야 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1구구 2주택자인 김모(여·42)씨는 광주가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세금부담이 커지자 전세를 내렸던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씨는 "하루 빨리 거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정작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없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매물이 너무 많이 나온 탓에 거래성사가 힘들 것이라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전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 보고 있다는 유모(여·37)씨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매매 물건도 늘고, 전세 물량 역시 증가했지만 최근 1년 새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유씨는 "전세 기간이 곧 끝나 하루빨리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7000만원 이상 올랐다"며 "가격 조건에 맞는 전셋집을 구하기 너무 힘들어 광주 인근 나주와 화순까지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부동산시장에 주택 매매 매물과 전세 매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전셋집 구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오는 6월부터 세금 부담이 예상되면서 이른바 '절세 매물'이 늘었고, 전세 매물 역시 늘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시장에 주택 매매로 나온 매물 건수는 3062건으로, 3개월 전(2192건)보다 39.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물건도 575건에서 655건으로 13.91% 늘었다.
전세와 매매 물량이 단기간 증가하면서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집주인들은 집이 팔리지 않아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도 매매가와 전셋값을 크게 내리지 않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1월 103.1에서 2월 104.0, 3월 104.8 등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달 5일에는 105.5까지 상승했다. 전세가격 지수 역시 1월 103.0→2월 103.6→3월 103.7 등 상승

했고, 이달 5일에는 104.0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집주인들이 매매가와 전세가를 낮추지 않으면서 거래가 성사되는 사례도 드물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아파트 매매 건수는 62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31건보다 8.37% 줄었다. 전세 거래는 2887건에서 3775건으로 무려 23.52%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광주의 전세값 상승폭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전세 가격이 수천만원씩 오른 탓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매물은 크게 늘어나고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19~5월4일 지역별 고용조사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호남권 3만7000가구 대상 인터넷조사 25일까지 진행

호남지방통계청이 오는 19일부터 5월4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 표본가구 3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2021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면접조사와 전화조사가 병행되며, 인터넷조사(narastat.kr/eregion)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3만7000여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이다.
호남통계청은 매년 상·하반기(4월·10월) 지역별 고용조사를 하고 있다. 시·군 단위 고용현황과 산업·직업 통계자료는 지역고용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취업 및 구직에 대한 사항, 기타 활동 및 이전직장에 관한 사항 등 총 32개 항목이다. 가구주와의 관계·성별·교육정도·혼인상태 등 '인적사항'과 수입있는 일 여부·주당취업시간·종사상지위·3개월 평균임금 등 '일에 관한 사항', 구직활동여부·취업가능성·구직경로 및 방법·구직기간 등 '구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항목이 구성됐다.
상반기 조사에는 '경력단절 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항목'이 추가된다.
시군별 주요고용지표는 오는 8월,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은 10월에 발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마트, 한우 반값에 쏜다

21일까지 '한우로 플렉스' 행사 진행

롯데마트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15일부터 21일까지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행사 이름은 '한우로 플렉스'로,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기존 판매가의 '반값'에 한우를 살 수 있다. 준비된 물량은 한우 700마리분이다.
대표 상품인 '1등급 한우 등심'은 15~17일 행사 카드로 결제 때 기존 판매가에서 50% 할인한 100g당 5950원에 살 수 있다.
엘포인트 회원이라면 대상 '한우 국거리·불고기(100g·냉장)'를 40% 할인된 각 3600원에, '1등급 한우 구이용(안심·채끝·특수부위)'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코로나19로 외식이 줄면서 지난 한 해 롯데마트

전체 축산 매출은 전년보다 약 10% 증가했다. 이중 한우 매출은 15%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한우 등심 도매가는 kg당 6만6050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원 가량 올랐다.
한편 앞서 롯데마트가 진행한 '미국산 소고기 50%'와 '남버나인 한우' 행사 때는 기존 주말 행사 대비 매출이 4배 뛰었다.
윤병수 롯데마트 신선식품2부문장은 "창립 행사 기간 동안 선보인 미국산 소고기와 '남버나인' 한우에 고객들의 호응이 높았던 점을 고려, 한우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며 "고객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축산물을 맛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나갈 것이며, 이번 주말은 한우로 풍요롭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롯데마트 광주월드점 직원 소고기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한국은행, 지역경제 발전방향 연구 논문 공모

30일까지 신청 마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연구 논문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마감은 이달 30일까지며, 연구 주제는 '지역경쟁력 변화가 광주전남지역의 성장 및 고용에 미친 영향'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의 경제구조 및 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1편당 2000만원 안팎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는 약 6개월 가량 진행된다.
연구는 한은 직원과 공동연구 형식으로 이뤄진

다. 선정된 외부연구자에게는 주저자(제1저자)로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이 부여된다. 논문 수준은 학술지 등에 게재 가능한 수준으로 이론, 서베이, 실증분석 등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연구계획서와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이다. 연구계획서는 연구방향 및 필요성, 지역사회의 수요, 정책적 시사점 등 내용을 포함하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분석방법의 적합성 등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062-601-1113)에 문의하면 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전남도, 광양서 첫 세미나

전남도가 지역리더 육성을 위해 마련한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 제1회 세미나가 광양에서 열렸다.
'새천년인재육성 프로젝트' 중 하나인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의 첫 강사는 김남도 서울대 교수가 맡아 '바이러스가 몰고 온 브이노믹스(V-nomics)'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양지역 기업인, 기관단체장, 도의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에 나선 김남도 교수는 "코로나가 바꾼 것은 트렌드의 방향이 아니라 속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에 시작된 변화들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고, 이를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느냐가 성공의 키워드"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돼 코로나로 인한 물리적 거리두기로 참석하지 못한 참여자들의 아쉬움을 달랠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을 통해 기업인·기관단체장 간 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혁신 글로벌리더를 계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